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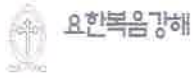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 - 5절, 14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세계로 들어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초대 교회에 노스틱주의자(gnostics)들은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으며, 영과 육이 있다는 이원론(dualism)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인간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14절)라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한 몸을 취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또는 말씀으로 아무런 뜻이 없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이면서 인간이 되셨다는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는 공로와 반대 개념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롬 5:8)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영감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2.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14절)

‘말씀(로고스)’은 태초에 있었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새롭게 합니다.

‘거하신다(에스케노센)’는 장막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중심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장막은 모세의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장막 안의 언약궤에는 두개의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있습니다. 돌판 곧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지팡이와 만나를 잇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고 계시의 장소입니다. 또 장막은 희생제물이 바쳐진 곳이고 예배처소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과 사람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태어나셨고(사 9:6),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롬 1:3), 여자에게 나셨습니다(갈 4:4-5). 그는 분명히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고난도 받으셨으며, 상실과 어둠과 심지어는 재판도 받으시며, 죽음까지 체험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1)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극치요 사랑의 결정이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입장과 환경과 형편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물이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편견과 아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몸소 시험과 매 맞음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표본이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혹은 선생으로부터 알고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의 지팡이와 만나가 있습니다. 돌판 곧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지팡이와 만나를 잇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고 계시의 장소입니다. 또 장막은 희생제물이 바쳐진 곳이고 예배처소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과 사람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3. 사람 되신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4절).

‘독생자(모노게네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관계로서 세상에서는 어떤 유형으로도 찾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와 독특한 관계로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는 공로와 반대 개념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롬 5:8)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부족하지 않은 것, 잘못되지 않은 것, 보편 타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셔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 모두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7학기목회자 신학세미나 2005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준비시작되다

3월7일(월) 일제히 개강

우리교회가 매년 전후반기 각 10주씩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개최하는 2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성도와 이웃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005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은 오는 3월7일(월)에 일제히 개강하여 총 10주간의

학사일정을 갖게 된다. 올해 목회자 세미나와 열린프로그램도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기도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의 표를 참조 한다.

<제2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주제: 교회행정과 예산
· 기간: 3월 7일(월) - 5월 9일(월) 10주간

일자	제1교시	제2교시 강의제목	강사	비고
3월7일		교회행정과 목회	이성희 목사	연동교회
3월14일		당회(치리회) 운영과 실제	손병호 교수	한국복음신학연구원
3월21일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황교안 부장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3월28일	(오후 2:00-3:30)	목회자와 교단행정	김순권 목사	경천교회
4월4일	시편연구:	교회와 조세	김영훈 교수	전)승실대 법학대학원장
4월11일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교회와 선교단체(Para-church 운동)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4월18일		성찬예식과 그 실제	정장복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4월25일		장례 및 결혼예식과 그 실제	이정일 목사	광장교회 원로목사
5월2일		임직식과 임명식	이승하 목사	해방교회
5월9일		예배음악	김순환 교수	한국성서대

<교사양성반>

· 시간: 주일 오후 3:20-4:30 · 장소: 609호
· 대상: 세례교인으로 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성도, 기존 교사로 마수료자와 희망자

일자	교과목	담당
3월13일	교회교육의 목표	이성득 목사
3월20일	구약 개설	이태훈 목사
3월27일	신약 개설	박광일 전도사
4월3일	교사의 자질	김은호 목사
4월10일	반목회	오정식 목사
4월17일	성경적 교회론	이용식 목사
4월24일	학생의 이해(발달심리)	한상은 목사
5월1일	학습지도	이규정 목사
5월8일	교사와 학생(심방,기도,상담)	지혜영 전도사
5월15일	예배의 자세	윤영국 목사

<제9학기 서울주부대학>

· 기간: 3월8일(화)-5월10일(화) 10주간 · 장소: 602호 · 수강료: 10,000 원
· 1교시-경건회 2교시-교양강좌 3교시-친교(점심식사) 4교시-특별활동
· 특별활동: 음악교실(찬양, 복음성가, 가곡), 인터넷교실, 요리강좌, 공예반, 독서(지도)교실

일자	교과목	담당
3월8일	성서적 인간: 육에 간혀있는 인간(창3:14)	김재진 목사(연세대 겸임교수)
3월15일	아름다운 음악과 생활	김정택 장로(SBS예술단장)
3월22일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장운정 실장(PCK 화장품)
3월29일	생활법률	이강진 집사(변호사)
4월5일	식목일(휴일)	휴일
4월12일	음악 그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로	박정선 장로(단국대 음대 교수)
4월19일	시인 에이츠의 세계	이완형 장로(한양여대 교수)
4월26일	가정생활과 새금	이우진 집사(세무, 회계사 대표)
5월3일	야외 수련회	야외수련회
5월10일	신앙간증: 나의 신앙과 방송	강석우 집사(방송인)

<제10학기 사뮈엘 경로대학>

· 기간: 3월10일(목)-5월12일(목)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 수강료: 10,000 원
· 1교시-찬양 및 경건회 2교시-교양강좌 3교시-친교(점심식사) 4교시-특별활동
· 특별활동: 성경교실, 컴퓨터교실, 율동반

일자	교과목	담당
3월10일	노년기의 신앙생활	이용식 목사(서울교회)
3월17일	약과 건강	이운진 권사(미문약국, 경희대 강사)
3월24일	건강과 한방	김재안 원장(에벤에셀 한의원)
3월31일	노인의 식단	나머용 집사(삼성의료원 영양사)
4월7일	리듬체조	김희 선생(방배초등 선생)
4월14일	영화상영	담당자
4월21일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노송성 장로(인천국제공항금융(주) 대표이사)
4월28일	야외수업	전 학
5월5일	체육대회	담당자(전교인 체육대회)
5월12일	자연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	이재운 집사(향초원 원장)

<교구일꾼 양성반>

· 시간: 주일 오후 3:20-4:30 · 장소: 607호
· 대상: 교구일꾼(간사, 다락방장)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
· 교구일꾼 중 마수료자

일자	교과목	담당
3월13일	그롭기도인도	이태훈 목사
3월20일	다락방모임의 실제	이성득 목사
3월27일	성령의 은사체코	오정식 목사
4월3일	다락방과 교회봉사	윤영국 목사
4월10일	다락방 전도대	이규정 목사
4월17일	다락방장의 리더십	이태훈 목사
4월24일	다락방 모임 시 집단상담	이용식 목사
5월1일	다락방 성경공부 인도법	김은호 목사
5월8일	이단연구	한상은 목사
5월15일	다락방 행정	지혜영 전도사

<제17학기 서울성경대학>

· 기간: 3월7일(월)-5월15일(주) 10주간 · 입학대상: 전교인 및 이웃주민
· 수강료: 10,000원(과목당)

개설강좌	요일/시간	담당	호실
사사기	월 오전 10:00-11:00	이규정 목사	602호
에베소서	화 오후 7:30-8:30	이태훈 목사	602호
배드로전후서	목 오전 6:00-7:00	오정식 목사	602호
고린도전서	금 오전 6:00-7:00	김은호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김은호 목사	609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오정식 목사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2:00	한상은 목사	602호
사뮈엘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2:00	이용식 목사	101호

금주의 성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 [NTV])

교구일꾼 도서실 개관 510호 내에

교구위원회(위원장: 김세재 장로)에서 교구일꾼들과 간사들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 2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독교 서적 도서실을 지난주일 개관했다.

당회원들과 교구 간사들의 헌금과 신간 기증으로 이종윤 목사의 저서를 비롯한 약 6백여 권의 기독교 서적을 구비한 교구일꾼 도서실은 주일에 교구간사실로 사용되는 510호 내에 설치되었으며, 1차적으로 교구 일꾼들을 대상으로 열람 및 대여를 개시한다.

열람 및 대여 시간은 주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도서실 운영책임자는 이학명 집사(정)와 남옥진 집사(부)이다. 교구 일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다린다.



만나보았습니다

멜버른에 울려 퍼진 애국가

지난 16일 폐막한 제20회 호주 멜버른 농아인 올림픽 (DEAFlympic)에서 우리나라가 금 7, 은 5, 동 2개를 획득해 종합 7위를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농아인올림픽 출전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애초 목표한 종합 10위를 무난히 달성한 것이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우크라이나가 차지했으며, 러시아, 남아프리카, 미국, 대만, 이란 등이 2~6위를 차지했고 독일, 중국, 영국 등은 8~1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선수단 중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 남자복식에서 은메달을 딴 에바다부의 이종봉 성도를 만나보았다.

애화중학교 2학년 시절 새로 오신 선생님의 지도로 시작한 배드민턴은 현재의 이종봉 성도가 있기까지 꿈과 희망이 되었다.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할 무렵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고, 건청인에 비해 배드민턴 실력이 도무지 늘지 않을 때는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럴때 마다 마음을 다 잡고 연습한 것이 오늘의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경기를 끝내고 이종봉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

이종봉 성도의 부모님은 건청인이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농인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은 이종봉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01년 로마에서 열렸던 농아 올림픽을 참가하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한다.

2003년부터 우리 교회 에바다부에 나오기 시작한 이종봉 성도는 에바부의 모든 교사들의 헌신적인 돌보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침 개교 4주년을 맞게된 에바다부가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성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장로가정탐방 - 임훈규장로가정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난 해까지 베들레헴 찬양대를 지휘한 임훈규 장로님은 찬양이 좋아 평생을 찬양과 함께 살아오셨다. 부인 정경자 집사님 사이에 외아들 중현(중국 유학중) 군을 두셨다. 최근엔 중현 군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여행 중이어서 이를 위해 각별히 기도 하고 있다고 한다. 3대째 하나님을 섬



기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장로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교 3학년 때. 당시 장로님은 갑자기 몸이 아파 학교를 두 달간 휴학했는데 휴학기간이 길어서 한 해를 다시 배워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학업에 매달린 끝에 무사히 그 해에 진학을 할 수 있었다. 장로님은 이때 역시 구원주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 부인 정 집사님은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의 맏딸이었지만 임장로님 가정의 기도와 끈질긴 전도로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

임장로님 부부가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때는 외아들인 중현을 낳았던 때였다. 중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수술을 했는데 부부가 밤낮으로 기도애 매달린 끝에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임장로님 부부는 큰 감사를 하게 됐다. 찬양에 각별한 은사를 받으신 임장로는 시편 146편과 147편의 말씀("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베들레헴 찬양대에서만 10년 넘게 헌신했더니 물러날 때 서운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17명이었던 베들레헴 찬양대가 이젠 100명 넘게 늘어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재정위원회 서기직과 4교구장, 관리위원장직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관리위원장으로서는 헌당 전에 예배당이 흠 없이 깨끗하게 주님께 바치길 소원하고 있다. "장로로서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보니 그저 열심히 한다는 얘기만 듣는데요. 그건 다른 특징이 없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죠."하며 겸손의 웃음을 웃는 임장로님. 그가 정과 부르신 사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김민철(편집부)

영어예배 시작합니다

Announcement of English Worship Service starting on February 6.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We are going to have an English worship service starting next Sunday, February 6. It has been more than four years since English bible class started and the English worship service is the answer to the praye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lass. The English bible class did not exactly "prosper", however, the bible class members had opportunities to share the meaning of the two great commandments of Jesus, the love of God and the love of neighbors. We pray that we could be now able to extend our sharing to anyone who joins the English worship service. Not all of us may be so gifted with English language (as you can tell from reading my writing), but we pray that the English worship community may be blessed with abundant love and grace. Praise the Lord!

2005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모이기를 힘쓰는 다락방

김세재장로(교구위원장)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14개 교구와 225개 다락방을 선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아울러 이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동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교구 일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다락방, 지체들을 향한 끊임없는 뜨거운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한 다락방이 되도록 지도목사님, 교구장님, 그리고 온 교구 일꾼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도 후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임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락방장 10대 수칙'을 교구 일꾼들의 활동지침으로 삼고 겸손히 섬기기를 다짐해 봅니다.

지난해에 남자다락방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두 사람의 헌신적인 시작이 남자다락방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새해 남자 교구 일꾼들에게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생각하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따로 내어 놓는 신앙의 호주들이 많이 생겨나서 매주 1,000명 이상 참석하는 다락방모임으로 14개 전교구의 부흥을 꿈꾸어 봅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그간 정리되지 못했던 각 세대별 교적자료를 1월 중에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구 일꾼들과 간사들이 자주 만나 교제하고 영적 부흥을 돕기 위해 510호에 조그마한 도서실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0개 다락방이 모두 COP(기도함주단)가 되어 매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울교회 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학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5년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며

손재형(대학부 부지도교역사)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대학부 여러분!

대학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또 언제든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대학부는 '십자가와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구원의 감격, 이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왔는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우리 대학부가 더욱 신실한 영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학부는 두 차례의 집회와 전체 기도회, 그리고 새 차례에 걸친 GBS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청년, 교회의 소망!'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을 두실 것입니다. 무릎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전국일꾼 양성 -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2005년 기도의 전사가 되자!

소원섭(청년부)

"2005 기도의 전사가 되자~!!" 라는 표어 아래 참석한 청년부 수련회에서 저는 평안과 위로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련회 처음 시간부터 참석하지 못했으나 중간부터 들



었던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핑계 아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올 해는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신앙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수련회 기간에서 받았던 말씀 중에 열왕기상 18장 30~32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엘리아가 무너진 여호와와의 계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년에 고민했던 일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고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

는 것을 느꼈고, 청년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였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청년부원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었고 2005년 청년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전사가 되어 청년부를, 나아가 서울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돌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씀과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며 조의 기도부장으로 세워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저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엘리아처럼 무너진 여호와와의 계단을 쌓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희망합니다.

습니다. 또한 이튿날 조별모임 시간을 통해서 조원들과 지금 처한 상황과 기도제목 등을 나누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고민하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알고 보니 다른 지체들의 고민과 문제들이 비슷하다

등정

- 등너: 김용운 성도 김현란 성도(113교구)
- 이사: 장두현집사 이미송집사(3-13) 서초구 양재동 6-12 드림팰리스 A 101/102 전화:577-9457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여전도회(1월30일) 에스더여전도회(2월6일)
- 금주의 식사: 서훈식집사, 김진성 권사가정 김병용집사, 김정은 권사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3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 TV - (http://www.e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i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교회, 세상의 소망 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북유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